

내 인생과 뗄 수 없는 한국의 책

‘한국의 혼’을 일깨워주는 탁월한 문학작품들

마리즈 부르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번역요원

아주 어릴 때부터 독서에 취미를 붙인 나는 지금까지 책에 빠져 살았다. 나의 또다른 하나의 열정은, 확실히 가끔은 잘 모른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내가 10년 전부터 살고 있고 또 여전히 나의 흥미를 끄는 한국이라는 나라다. 나에게 한국을 알게 해 준 책들에 관해 언급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서 말한 나의 두 가지 열정에 관해 이야기하라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듯하다.

직접 한국책을 만들며 얻은 기쁨

한국에 관한 책을 처음으로 접한 것은 13년도 더 된 일이다. 당시 나는 파리에 있는 동양언어·문화학회에 다니던 학생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그때까지 매우 생소했던 한국어를 접하게 되었다.

내가 처음으로 한국어 사전을 구입한 것도 당연히 그때의 일이다. 나에게 있어 책은 특별히 매력적인 것이고 책을 살 때면 항상 일종의 감동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 첫번째 한국어 사전은 이젠 더이상 별 매력을 느끼지 않는, 살 때 느꼈던 감동을 잊은 그런 일을 할 때 쓰는 나의 가장 충실한 도구이자

일상생활의 사물이 되어 버렸다.

마찬가지로 내가 한국어 기초지식을 맨 처음 습득하게 해 준 몇몇 서적들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도 부질없는 일 같다.

그 보잘 것 없는 책들은 지금 생각해 봐도 공공기관의 후원

덕택에 출간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그리 강하지 않았더라면 그 책들을 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내가 발견하는 영어나 프랑스어, 일본어 등의 컬러판 사진이 가득한 교재를 보고, 한국어 입문서와 비교를 한다면 왜 그렇게도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어를 열심히 배우며, 왜 그렇게도 적은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된다.

사전과 교재 이외에 기억에 떠오르는 책은 《한국의 생활》이라고 화려하게 제목이 붙은 문교부에 의해 출판된 노란 표지의 자그마한 책이다. 그런데 그 책 표지에는 또 ‘재외 국민 어린이용’이라고 써어 있었다. 나는 그 책 속에서 한국의 국기, 애국가, 무궁화, 그리고 문화적 보물들을 발견하였다. 그 책의 쉬운 원문들은 우리 같은 초보자들에게 완전히 적합하였고 그 책을 쓴 저자들이 이런 명확성에 대한 노력에 찬사를 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많은 재외 한국 어린이들이 그 책을 읽으며 그들 선조의 땅에 찾아가 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는지는 의심스럽다.

자만심이 있다고 남들이 말할 우려도 있으나 내가 한국에 관해 실제로 많은 것을 배우게 해 준 훌륭하고 아름다운 첫 작품은 내가 책 완성에 참여하는 행운을 얻은 책이다. 프랑스 여자 친구인 마르틴 아에플리는 매우 아름다운 사진책의 저자인데, 인도의 위대한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의 말인 《동방의 빛, 한국》이라고 예쁘게 제목을 붙였다.

나의 친구가 내게 책 원문과 사진의 설명문을 읽기를 부탁했을 때 난 기쁘게 그 일을 승낙했다. 책을 수없이 읽었던 나였기에 나도 책을 저술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그때의 공저는 내가 오래도록 품어온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해 주었다. 그때는 내가 한국에서 생활한 지 2년이 되던 때였고 한국어를 더 잘 알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친구 마르틴 아에플리의 한국에 대한 백과사전과 같은 지식과 매우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시각은 나의 한국에 관한 지식욕을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문학을 매우 사랑하는 나는 한국 문학작가들의 작품을 무척 읽어보고 싶었다. 불행히도 나의 한국어 실력은 이런 독서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지 못했으나 그로 인한 실망은 몇몇 한국 작품의 번역판을 읽음으로써 어느 정도 누그러질 수 있었다. 그러나 번역판은 원서와 많이 달랐다.

내에게는 무척 다행스럽게도, 몇 년

전부터 번역판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질이 향상되고 있다. 악트 쉬드(Actes Sud) 그리고 필립 빠기에(Philippe Picquier)란 두 출판사가 이 번역 출판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이 두 출판사의 집요함에 힘입어 프랑스어권 독자들은 점점 더 많은 한국문학을 감상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작년 프랑스에서는, ‘레벨제뜨랑제르(Les Belles Etrang res)’란 문학행사로 13명의 한국인 소설가와 시인을 프랑스 대중에게 선보였다.

내 기억이 맞다면 소설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프랑스어로 번역이 되기 전 영어로 씌어졌다. 왜냐하면 그 책의 저자, 강용홀(1898~1972)은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엄밀히 말한다면, 한국 문학에 속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소설을 인용하고 싶다. 자서전적 이 소설에서 저자는 애정을 담아 저자가 역사의 희생자가 되기 전의 자기 고국을 묘사하고 있다. 이 책은 내게 크나큰 의미를 부여해 주었는데 과거 지나간 시대에 대한 그의 이상주의적 시각은 나로 하여금 한국인들이 하얀 옷을 입고 초가집에서 살던 시대에 한국을 알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갖게 했다. 그 이후 한국이 달성한 눈부신 발전에 대해 기뻐하고는 있지만 말이다.

하얀 옷 입고 초기에 살던 시대의 한국

거의 모든 서양인들은 이국 정서와 노스텔지어를 좋아한다. 나도 역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한국이란 나라를 알고 싶다고 말하고 싶다. 그런 이유로 해서 나는 19세기 말과 금세기초에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왔던 유럽인들이 쓴 여행 이야기를 거의 읽었다. 조선 왕조에 대한 매우 명확하고 때로는 해학이 가득하고 흥미진진한 그들의 관찰기록과 흑백사진들은 나에게 한국에 관해 역사책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해주었다.

또 그보다 한참 전에 일이지만 그가 거의 모르고 있던 민중사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살아야 했던 불쌍한 네덜란드 여행자 헨드릭 하멜(Hendrik Hamel)이 쓴 아주



마리즈 부르덴씨.

재미있는 《네덜란드 배의 난파 여행일지》를 언급하고 싶다.

나는 논설보다는 가벼운 내용의 작품을 더 좋아한다. 나는 한국어,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씌어진 많은 콩트들을 갖고 있는데, 나는 자주 콩트를 읽으며 즐긴다. 몇몇 작품들은 정말로 재미있다. 선한 자, 바보, 게으름뱅이 등에 대한 성격 묘사는 유럽 콩트나 라퐁텐느(La Fontaine)의 우화들에 나오는 성격과 비교하기에 흥미롭다.

이 글을 쓰며 나는 책을 꽂아 둔 서재를 한 바퀴 돌아보았는데, 그곳에는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많은 책들이 있었고 읽지 못하고 있는 책들도 많았다. 그 중에 여러 작품을 주의깊게 읽었지만 나머지는 어렵다는 이유로 읽기를 포기했다.

하지만 이 모든 책들 중 가장 아름답고 흥미있는 책은 내가 현재 번역 중인 서정인씨의 탁월한 소설 《달궁》이다. 이 소설은 한국에서의 내 인생과 뗄 수 없는 책으로 남을 것이다. 나는 한국의 혼에 관해서 다른 나머지 모든 책보다도 이 소설이 나에게 더 많은 걸 가르쳐 준다고 말하곤 한다. 이 소설이 나에게 고쳐시켜 주고 있는 열정을 프랑스어권 독자와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양대의 김경희 교수와 이인숙씨와 함께 《달궁》을 번역하고 있음) ❖